

연중 제14주일
교향주일

기도서 385면 (B해)

제1독서 : 예제 2, 2-5

제2독서 : II 고린 12, 7-10

복음 : 마르 6, 1-6

숲 정 이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마르코 6, 4).

강론

『예언자의 말을 듣는 믿음』

성 태수 신부 / 덕진성당 주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러나 남이 잘 되어 갈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을 흔들어 내려놓아야만 직성이 풀리게 된다.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큰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다. 나자렛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혜와 기적의 능력에 놀랐지만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자기들에 비해 별볼일없는 목수를 존경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명성이 그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마르6,4)는 말씀을 하신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인 지를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자칫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오늘의 제1독서도 같은 맥락에서 묵상할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야훼께서 예제키엘 예언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낮가죽이 두꺼운 자들, 그 고집이 센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예제2,4)고 하셨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의 역사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간주하고 하느님보다는 우선 눈 앞에 닥친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보다 눈 앞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더 열을 올렸고, 하느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 판단에 더 신뢰를 두고 있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굳어진 돌심장을 가진 그들이었다. 그들이 품고 있던 오류와 환상을 깨기까지 그들은 큰 냇가를 치러야 했다.

하느님 앞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대체 무엇이며, 체면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다”(고린후12, 10)고 하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느님이 커져야 하고, 돌심장이 아닌 살심장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참다운 믿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소리

현대판 왕릉과 순교성지

전주의 경기전 안에는 전주 이씨의 시조와 시조비(부인)의 위판을 봉안한 조경묘가 있다.

이 조경묘가 창건된 것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3백 80년만의 일이었다.

그것도 고구려나 신라가 모두 시조묘를 세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건국한 지가 실로 수백 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시조묘가 없음을 개탄한 7도유생들의 상소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다.

부모 묘역을 잘 가꾸는 걸 탓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루머인지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고나면 5공화국의 비리가 요즘 시중의 화제거리 주역으로 등장하는 판국이다.

그것도 대부분 당시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부정 부패가 드라마의 크라이막스가 아닌가?

그중에서도 당대에 조성된 현대판 왕릉(?)문제는 우리의 순교자 묘역과 비교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원래 2만평이나 됐던 묘소를 13만평으로 늘리고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갖춘 호화로운 조경에 경찰 1개소대가 상주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군청살림과 직원이 파견되어 성역화(?)했다는데 이 돈이 국고에서 지불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안고 있다.

전주의 효자동 공묘묘지의 한사람이 고작 1.5평을 사거로 사용하는 것에 비교하면 당초 2만평도 대단한 판국에... 논가운데 초라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여산순교성지를 대입하면 더욱 기가막힐 지경안가?

숲정이 산책



많은 기도를...

교황과 교황청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자 베드로는 “예 수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고 말씀하셨다. (요한21, 15-18)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16, 17-18).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루가10, 16)이라 하셨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당당히 지상에서 하시던 구원의 사업을 사도들에게 이어

주셨고 이 사도중의 으뜸 사도로 베드로를 세우셨으며 이 베드로의 후계자들을 우리는 ‘교황’ 또는 교종(敎宗), 아버지(Papa Pope),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의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 보편교회의 최상 주교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분께서 머무시는 곳을 교황청이라 하는데 공식 명칭은 ‘바티칸 시국(市國)’이다. 이곳은 사도 베드로의 순교지이며 그의 유해가 아직도 그곳 지하에 안치되어 있다. 비록 0.44km²의 좁은 영토와 인구 856명(1984년 현재)의 세계 최소의 나라이나 전세계 8억 가톨릭 신자들의 총 본산이며 108개국의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국이다. 현 교황은 베드로의 264번째 후계자 ‘오한 바오로 2세’ 이시다. 오늘은 ‘교황주일’ 전세계 8억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교황님의 의향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성서와 함께

9. 팔레스티나의 생업(A) : 목축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은 반유목민(Seminomads)이었다. 그들은 약간의 살림살이를 나귀에 싣고 가축떼를 몰고서 사막의 주변을 떠돌아 다녔다. 낙타를 몰고 다니던 부족도 있었으나 그나마 소수에 불과했다. 반유목민과 유목민의 차이는 후자가 사막을 삶의 근거지로 삼고 사막 깊숙이 찾아들어가는 데 반해 전자는 사막 언저리를 방황하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정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기원전 13C, 마침내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티나에 정착하면서 반유목민의 생활을 영원히 청산한다. 그러나 유목생활의 여러 요소들이 히브리인들의 의식과 종교생활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유목생활은 철저하게 단순하고 검소하다. 아무도 나귀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이상으로 재물을 소유할 수 없다. 낭비와 사치는 금물이며,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공동체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의 적 앞에서 분열과 의견대립은 부족을 파멸로 이끈다. 가축떼를 몰고 함께 다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며, 특권 계층이란 용납될 수 없다. 조연자들의 도움을 받을 망정, 명령권자는 단 한 사람뿐이며, 그의 말에 절대복종해야 한다. 한편 지도자는 자기 부족을 위해 가장 알맞고 현실적인 통치구조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히브리인들이 반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농민이 되었을 때, 이러한 생활방식도 바뀌게 된다. 하지만 농경생활의 폐단 앞에서 그들은 사막에서의 유목생활에 대한 동경을 떨쳐버리질 못한다. 예언자들은 사막에서 목동들이 입던 짐승가죽 옷을 즐겨 입었고(열왕 후1,8; 즈카13,4) 이러한 전통은 세례자 요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태3, 4).

예언자들은 농경생활이 소수특권층에 부여했던 생활의 안락과 사치를 고발하고 거부했다. (이사 5,8; 야모 3,15; 6,18). 그들의 가르침 속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노예나 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유목생활에서 배운 평등사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레위 25,39-41; 판관 9,6-21; 사무 전 8,10-22). ‘레갑인’들은 사막에서의 금주 규범을 바빌론의 포로생활에까지 끌어내려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한다(예레 35장).

특히 가나안 입주 전, 시나이 반도에서의 유목생활은 이스라엘의 신앙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광야에서의 방랑시절은 히브리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과 야훼 하느님 사이의 관계가 돈독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난 사십 년간 광야에서 너의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신명 8,2). 신명기의 저자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의 어려움들을 열거하고 동시에 하느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돌보심을 상기시킨다(신명 8,2-5. 14-16). 이스라엘의 순수한 야훼신앙은 이렇듯 사막에서의 체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와 반면, 농경생활의 안이함과 사치스러움, 대지주와 소작인들 사이의 빈부차, 왕족과 귀족 등 특권층의 횡포는 이스라엘의 단결을 파괴시켰고 유대민족의 종교생활과 정신문화를 황폐케 했다. 하느님의 은덕을 저버리고 자만심에 빠져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뺏아들이 빠져서 일해서 모은 것이다”(신명 8,17)고 주장하는 유목민의 후예들에게 예언자들은 결국 뿌리찾기 운동을 벌인 셈이다.

간판 · 프랑카드 · 네온사인
상패 · 행사기념품 · 실크인쇄

무지개 광고학
RAINBOW AD PLANNING CO.

김창식 (스테파노)
☎ (0652) 82-3050
자 84-7772

히소식

독사뱀몰린 사람 전문치료
단 1-2회 즉석에서 효과 완치

송준의 (발리바)

전주시 전마동1가 전당리 시내버스중점
시내버스안내:9번,31-1,31-2,31,49번

☎ (야)5-3544, (주)3-8441

GS 금성이리판매센터 **GS** 금성통신특약점

이리익산서비스 지정점

공무원연금가 할인판매 무선전화기 키폰등
FAC 할부 3,6,9,12,15,18회 각종전화기 일절 취급

전화 : 2-8661, 3-9963, 52-5422, 자택 52-4040

이리시 창인동1가 181-4 (서문신탁은행 앞) **김석환** (마태오)

□ 사제평의회 회의결정 사항 □

지난 6월 15일자 사제평의회 회의시 다음 안건이 확정되었습니다.

1. '89년도 본당 신실 예정지는 전주 삼천동, 남원, 전주 남노송동, 이리 어양동 순으로 정한다.
2. 본당 신설을 위해 전주 우아동, 팔복동, 군산 소룡동은 우선 성당부지만을 매입하도록 한다.
3. 89년도 보좌신부 영입본당은 노송, 덕진, 둔율, 효자, 금암으로 예정한다.
4. 신실 교포사목 지역으로 L, A를 예정한다.
5. 8월 사제평의회시 '88년도 교구 사목지침에 따른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교 구 소 식

※ **죽!** 신동 천주교회 사제관 축성식: 7월5일 오후5시 주례-김환철 총대리 신부

1. 주교님 해외 출장: 6월28일~7월26일
· 오스트리아의 "부르노 크라이스키 인권재단"에서 한국 정의 평화 위원회에 수여하는 인권상 수상 · 구라파에서 유학 또는 교포사목 교구사제 방문 · 로마방문-5인 순교자 시복 시성문제 협의 ※ 무사히 다녀오시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신학생 연수회: 11일(월)~14일(목) 장소-관촌 사선대→지리산
3. 사회복지월례미사: 4일 오전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4. 군중 후원회 월례미사: 4일 오후8시 장소-가톨릭센터
5. 7월 시민강좌: 4일 저녁8시미사후(8:30) 장소-전동성당
6. 휠콜라레 운동의 하루 마리아 뿌리: 오늘12시-18시 장소-해성중·고 강당 대상-중·고대학생, 미혼남녀, 기혼남녀, 성직자 수도자(미사있음)
7.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7일 10시. 장소-덕진성당 미사도구, 도시락 지참
8. 초등부 교리교사 연수회: 5일~8일 장소-송광사 제2야영장 회비-시지역14,000원 군지역 12,000원 접수-5일오후3시 야영장에서. 준비물-미사도구, 필기도구, 쌀10끼분(넉넉하게) 자료집 안내-"성체대회와 미사" 1권당 1,000원
9. 대학생 지역대회: 11일-14일 장소-진안 어은골→한들 집결-11일(월) 오후1시 가톨릭센터

※ **죽!** 영명 성 토마스(3일): 서용복, 김정원, 이재후, 이종원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5일): 김진소 신부 축하합니다.

두레상 —————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은 누리에 참 평화를

하고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 나라가 오는 89년 세계성체대회를 주최하게 됐다는 것은 여러 모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 합해도 겨우 전체 인구의 5부를 좀 넘는 소수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활기와 열성은 극동에서의 교회의 앞날에 희망을 안겨준다고들 여길만큼 세상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권을 이루던 서구에서는 오히려 신앙이 쇠해가는듯한 오늘날, 우리의 속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같은 소수교회가 그리스도신앙을 모르는 사회 전체에 성찬의 산 뜻을 질실한 진리로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뽕더러 율불서의 유구한 고등 종교문화에 젖은 땅에서 그리스도신앙의 진수인 성찬의 선비를 새김으로써 모두를 위해 그 뜻을 더 깊이, 더 널리 깨쳐 새롭힐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유다를, 그러나 고부적인 배경과는 달리, 우리에게에는 또한 조국분단이라는 기막힌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만의 아픔이기보다 일치와 평화를 못 이루는 온 인류의 비극을 몸으로 드러내는 상처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불신마저도, 아니 공산주의마저도, "그 성체대회라는 것 정말로 뜻 있구나, 우리에게도 절실한 진리를 말하는구나" 하게 된다면 정말 보람되었을 것입니다.

요십이 (1778) 김병오



□ 1분 명상

당신의 인생은 현재의 순간들의 연속이다.
명동피부과의원

① 등본한의원 (전)

진료과목: 한방내과·부인과·소아과
침구과·한방요법실
이리시 중앙동3가 26-1 ☎ 52-4666
원장 김경환 (파비아노)

중랑화장품 할인코너
중앙화장품 백화점
각종선물 도산대
중랑선물의 집
박윤균 (안당)
☎ 4-0841
결혼 선물세트 특별우대
전주시 중앙시장 옆(구 한일상회)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황수경
산부인과전문의를 (크리스티나)
이승렬 (엘리아)
판통로 서울신학은행 건너편 골목
☎ 84-7272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오거리 나정형외과 앞
☎ 74-1123
☎ 3-6709

서범석한의원
원장 서범석 (꽃배)
위치: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 72-2665 · 75-3533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군신경외과의원
부설: 물리치료실
원장 신일균 (아오스님)
윤귀자 (모사리아)
병원 84-7288 · 자 8-8417
판통로 전주백화점→다가교 중간

□이리지구 본당소식□

* 송학동

사제관 51-5340 주임신부 이태주
사무실 3-9713 사목회장 오봉익

※ 본당 건립을 위해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와 비품 봉헌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봉헌집수 사무실)

-봉헌자 명단-
· 모1 김천환, 이태규각500,000 · 인명1,000,000 · 송1 베병성, 장인봉-정영애 모2 고석관 용관리-서월순 각50,000 · 송3 이수암30,000 · 모2 김성희 송1 김바리오 용관리-김병석 박아네스 각20,000 · 분광롭바, 박순복 각10,000 이상 감사합니다.

* 오늘은 교황주일: 교황님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2차헌금 봉헌)

1. 사목회 월례회: 금일 공식미사후
2. 가정방문: 6일 용관리 구역상남은 미리 준비 바랍니다.
3. 구역장회의: 7월8일(금) 저녁8시 성당
4. 예비자 입교식: 7월10일(일) 공식미사에 있습니다.
5. 유아세례: 7월15일(금) 어머니 미사때(대부모 정하여 사무실에 신청 바람)
6. 구역 형제회: · 오산-김선경씨매 4일(월)오후8시 · 모현2구-전길순씨매 모현A 3동209호 6일 오전10시
7. 금주전례: 해설-시원기 독서1송기봉 2최정원 기도-김학진 부부
차주전례: 해설-오봉익 독서1이재길 2김영수 기도-양종철 부부

□ 지난주봉헌금: 320,180원 □ 교무금: 215,000원

※ 교무금은 매달 봉헌해 주시고 미 신원세대는 신원 바랍니다.

* 신동

임시사제관 54-7427 주임신부 박종삼
임시수녀원 54-6313 사목회장 최학렬
사무실 54-1827

1. 영세 대상자 특별교리: 4일까지 저녁8시30분 인도하신 분들과 대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2. 사목회·대의원 월례회: 공식미사후
3. 축! 영세식: 5일 저녁미사 중에
4. 축! 사제관 축성식: 5일 오후5시
5. 예비자 입교예식: 다음주 공식미사 중에 예비자 인도카드 사무실에 제출 요망
6. 본당 살림에 관심과 협조를: 원보함조(교무님은 월별로 봉헌)
7. 청소담당: 남중2, 3구역(4일 실시)
8.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오후2시 소성당에서
9. 금주전례: 해설(공식)김봉길 (저녁)이귀영 독서1김용만 2백윤옥 봉헌-백영 정화숙부부 기도-조양사, 이옥순 자매
차주전례: 해설(공식)노대석 (저녁)이희식 독서1김학현 2양주석 봉헌-조명운 이경자부부 기도-김옥희 이명옥자매

□ 지난주봉헌금: 554,640원

* 영등동

사제관 54-2202 주임신부 안복진
사무실 52-2240 사목회장 송상섭

1. 구역장 반장 월례회: 금일 공식미사후
※ 월례회 참석시 회의록 지참
2. 꾸리아 월례회: 차주공식미사후
3. 금일은 교황주일입니다: 2차 헌금 있음
4. 평신도강론: 사회복지분과
5. 전신자 하계피서:
1. 일시-7월25일부터 30일까지(5박6일)
2. 장소-마포
3. 가족단위 피서나 본당단체별, 개인별 신청바랍니다.
4. 전신자 일차행사로서 뜻있는 피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6. 애덕회 월례회: 7일(목) 오후2시

7. 성심회 월례회: 7일(목) 오후2시
8. 울뜨레아 모임: 5일 저녁미사후
9. 예비자교리: 지난주 입교식 하신 분들은 공식미사후 교리→2회의실
10. 단체별 철야성체조배: 5일(화) 저녁8:30 6일(수) 저녁8시까지 ※구역별 단체별 성체조배 시간은 계시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경로잔치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12. 금주청소담당: 귀촌의 거울(4일) 천주의 성모(9일)
13. 금주전례: 해설-민철기 독서1김승관 2임인규 기도및봉헌-소재강씨부부
차주전례: 해설-장광숙 독서1박철순 2이용신 기도및봉헌-장광주씨가정

□ 지난주봉헌금: 660,950원 □ 교무금: 168,000원

* 주현동

사제관 54-9030 주임신부 범영배
사무실 2-3993 사목회장 김한기
수녀원

- ※ 축! 영세: 하늘님의 자녀가 되신 영세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예비자 인도 서약서 봉헌: 오늘부터 봉헌시간에...
※ 20주년 기념 사업에 일치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1. 금주성서: 여호수아14,1-15 베드로2,1-25
 2. 구역봉사자 모임: 6일 저녁미사후
 3. 성시간 겸 성령 기도회: 7일 저녁8시
*구역별 성체조배(본당미사 오전9시)
 4. 안나회: 7일 오전10시
 5. 꾸리실로 본당 울뜨레아: 9일 저녁8:30
 6. 꾸리아 월례회, 성모회, 35회, 형제회, 초중고후원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7. 주현 신행 남직원 모임: 문의 54-9469
 8. 금주전례: 해설-이동진 기도-김종연
독서1김성환 2송순안 봉사-고신해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윤란 기도-서해봉
독서1김화곤 2최윤경 봉사-장철수부부
 9. 금주청소: 최인의 의탁Pr

□ 지난주봉헌금: 428,580원 □ 교무금: 466,610원

□ 20주년 특별헌금: 1,175,000원 합계: 10,711,000원

* 창인동

사제관 52-9073 주임신부 문정현
사무실 2-2325 보좌신부 이동
유치원 2-1028 사목회장 김은홍

※ 본당수녀원 신축은 우리의 일치된 마음의 기도와 청성된 봉헌으로 이루어집니다.

1. 오늘은 교황주일: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를(76P) 2차특별봉헌
2. 대의원 월례회: 공식미사후
3. 치명자모후교미시움: 오후2시(강당)
4. 베소라섬서강의: 7일(목) 오전10시~12시까지
5. 성시간: 7일(목) 저녁미사후
6. 성령기도회: 8일(금) 저녁미사후
7. 영세자대상특별교리: 매주수-목요일 오후7:30~8:30까지 영세전까지 실시하며 유아대상자는 16일에 실시함(유아세례)
8. 가정방문및 형제회 일정(): 일정-창인1구(5일) 창인2구(6일) 창인3구(7일) 창인4구(8일) 차주-중앙12구 갈산12구
9. 청소담당: 남중8구(4일) 학생회(9일)
10. 금주전례: 해설-배애자 독서1오성철 2박석중 기도-갈산1구
차주전례: 해설-김성자 독서1박종삼 2김효중 기도-갈산2구
(첫미사 강윤순 저녁미사 신명국)

□ 지난주봉헌금-707,720원 □ 교무금: 424,000원